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와 스토리텔링*

이 창 식**

1. 머리말
2.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 문제: 아리랑 스토리텔링의 원형과 가치
3. 아리랑 유산의 스토리텔링과 길러콘텐츠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아리랑 원형에 대해 정신소를 고려하여, 저항-상생-대동의 삼재론을 내세웠다. 저항성은 한민족의 천명적 신화론(天)과 관련이 있다. 상생성은 한민족의 숙명적 지역론(地)과 관련이 있다. 대동성은 한민족의 인본론(人)인데, 세계적 열린 마인드다. 이 셋은 아리랑의 잠재가치로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 값진 측면이 있다. 한류의 저항적 상상력, 지역기반 감성의 진행형, 치유의 융합원리는 아리랑 유산의 창조적 유전인자라고 정리해 보았다. 이는 현장경험론과 앞선 아리랑 인문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다. 스토리텔링의 사례와 창작 방향은 기존 글을 비판하여 아리랑 초장르론을 제기해 보았다. 팩션지향 상상력 스토리텔링, 놀이지향 재미 스토리텔링, 컨버전스지향 치유 스토리텔링이 그것이다. 세부 창작 사례는 아리랑피칭워크샵-생산, 유통, 소비 동시다발의 아리랑포럼-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세명대학교 교수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국책급 아리랑 문화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아리랑 유산의 창조성 연구는 아리랑의 융합학문의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아리랑 유산에 대한 인문융합의 학제적 연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 기반의 보편적 가치를 심화시켜 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후속 인재로서 이 방면 아리랑 전문가-아리랑학당의 아리랑 유산 스토리텔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아리랑의 활성화를 지속시켜 가야 한다. 아리랑 유산의 원형성을 짚으면서 세계화의 당위성과 현재성, 소통성 등을 강조하였다. 항목별 연구는 아리랑 원형과 아리랑 콘텐츠의 가치창조를 통한 인류문화의 걸작으로 학제간의 융합프로젝트가 시도되어야 한다. 아리랑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산은 K-팝과 같은 한류의 K-아리랑의 경제력과 감성공유의 코드에 맞춰야 한다. 아리랑 원형은 한류 킬러콘텐츠의 문화상품으로 드러날 것이다.

아리랑 유산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 동시다발의 스토리텔링-스토리텔링마케팅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집체아리랑 공연 기획과 연출을 참고하되, K-아리랑과 아리랑굿 한류의 감성 스토리텔링 접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생적인 향토소스(지역의 아리랑자원 활용)와 디아스포라의 한인 향수소스(역사적 아리랑자원 활용)를 통해 이야기 가공과 세계인의 감성 자극 문제를 지속적으로 진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아리랑의 세계화 센터 설립을 거듭 제안한다. 한류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문적으로 한류의 성과를 비판하고 아리랑의 감성적 확산을 정립하면서 통섭의 세계화를 되짚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아리랑 유산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고 해서 반대 급부로 감정적 대응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아리랑 유산의 매력에 적절한 이야기의 감성DNA 찾기가 시의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리랑 유산의 진정성은 OSMU(One source multi use)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김구의 민족적 문화주의 실현론이 가능하다. 아리랑 스토리텔링의

창조적 진행형은 한류의 또다른 국면이다. 한류 K-아리랑의 가치창조론은 21세기 대세이다. 다만 보편적 가치 소통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다. 또 역기능의 우려에 대한 반론도 기대된다. 이 글을 통해 향후 아리랑의 문화적 다양한 국면을 쟁점화하여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의 진입을 기대한다. 필자의 관심은 과거의 아리랑 예찬에 있지 않고 오래된 미래 아리랑 활용, 곧 소통의 세계화 프로젝트에 있다. 앞서 제시한 스토리텔링 사례는 인문학자로서 창조 스토리텔러로서 제안에 머물러 있어 분명 한계가 있다.

주제어 : 아리랑, 삼재론,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아리랑 유산, 한류, 스토리텔러

1. 머리말

아리랑 유산은 사설의 문학적 가치만 주목할 수 없다. 실제 아리랑 소리를 비탈밭에서 들었던 맛을 공연장에서 똑같이 느낄 수 없다. 그렇다고 예전 방식의 아리랑 부르기를 고집할 수 없다. 그 진한 아리랑 향토성과 근대이행기의 세련된 통속성을 동시에 주목하여 아리랑 유산의 가치에 대해 세계무형자산으로 일찍 관심을 기울였다. 아리랑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학술, 공연, 전시, 홍보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¹⁾ 아리랑은 한민족문화유산의 대표 아이콘으로서 한류 K-아리랑 형태로 집약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리랑은 한국인 삶의 현장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전승되었던 전승물이다. 한국인에게 문화행위 이상의 복합적 소리 유산이라고 인식해야 한다.²⁾

아리랑의 원형, 그 범위와 층위를 선명하게 말하기 쉽지 않다. 이보형,

1) 2011년, 한국민요학회(김기현, 김영운, 강동학, 최현, 이창식, 권오경, 김혜정) 주도 아리랑 등재 신청서 작성.

2) 이창식, 「아리랑」,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5, 470-472쪽.

이용식 등은 음악적으로 강원도 아라리가 아리랑 소리의 근원이 되었다³⁾는 편이다. 문학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서정적인 공동체 구비시다. 전승현장으로 보면 아리랑은 과거처럼 점차 생산적 기능을 잃어갈지라도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근대 아리랑 형성에서는 민족운동사의 의병아리랑과 독립군아리랑, 김산과 나운규 아리랑 영향으로 한국인이 흔히 부르는 아리랑으로 자리잡았다.⁴⁾ 이처럼 통속(대중)아리랑이든 향토아리랑이든 아리랑의 적층된 전승원리에는 치유, 상생, 융합의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

아리랑의 세계화는 축적된 전승기반에 부응하며 21세기 아리랑 가치 창조로 다양한 분야와의 보편적 소통화 방식이다. 아리랑의 세계화의 변신은 선불리 예측할 수 없다.⁵⁾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아리랑 콘텐츠 개발 연구는 아리랑의 상징 이미지에서부터 인문학문의 세계관에 따른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⁶⁾ 아리랑의 스토리텔링 창작은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감성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아리랑의 근원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러 매체에 접목하는 전문가-OSMU 스토리텔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스토리텔러 중에 아리랑을 생활문화 속에 다양하게 접속하고 녹여내어 명품아리랑 관련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실천적 전략이 중요하다. 아리랑의 창조적 수용은 여전히 진행형이면서 미래의 화두이다.

아리랑의 분야별 연구 실상은 아리랑의 공연화와 활용 과정의 대응책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류 분위기로 보아, 과거 농경사회의 전승 문맥과 나운규 이후 매체 수용을 위주로 하는 아리랑의 인문학 연구에서

3) 이보형, 「아리랑 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근대의 노래와 아리랑』, 소명출판, 2009, 425쪽.

4)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 콘텐츠, 아리랑학」, 『한국민요학』 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181-213쪽.

5) 문화재청, 『지역별 아리랑 전승실태 조사보고서』 2004, 2006.

6) 이창식, 「아리랑의 문화콘텐츠와 창작산업 방향」, 『한국문화학 예술』 6집, 송실대 한국문예연구소, 2011 참고.

스토리텔링 위주의 아리랑 콘텐츠론도 힘을 얻어야 한다. 천지인 삼재론(三才論)은 저항성, 상생성, 대동성과 부합한다. 이러한 정신소(精神素) 문화원형의 아이콘에 대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의 개발 전략도 아리랑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아리랑의 독창성을 찾아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공감된 아리랑의 보편적 가치를 심화시켜 가는 전략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기존 아리랑 관련 전승물의 원형 성찰과 아리랑 관련 문화충유 진단 등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결국, 이 글은 원형 위주의 세계화 진단과 스토리텔링 창작 전략에 대한 통섭적 논의가 되겠다.

2.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 문제: 아리랑 스토리텔링의 원형과 가치

(1) 저항형 상상력과 자극: 아리랑의 한류 아이콘

현대는 지식형 문화감성시대이다. 현대의 한국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세계시장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자기정체성의 전통 하나로만 지구촌 디지털시대의 문화산업의 흐름에 살아남을 수 없다.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는데다가 한국문화와 민족사에 대한 체험적 답사기 위주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지만, 음식문화의 양식화와 외식화의 정도나 토익·토플 관련 서적의 엄청난 판매량이 보여주는 현실은 아직 한국 문화환경의 대응력이 미약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 문화환경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갈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개별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의 파괴로 나타나고 한편, 모든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지구촌 고속화 문화 속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IT강국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고유의 문화인자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추세에 있다.7) 이런 추세에 전통문화 또는

민속문화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⁸⁾ 김구 백범일지에서 말한 세계 속에 문화봉사 국가시대를 열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항목 중에 하나가 아리랑 유산이다. 아리랑 아이콘은 국가 브랜드의 가능성이 크다.

국가브랜드 이미지 구축사례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국가발전 전략이 곧 국가브랜드 이미지로 연계시키는 전략, 둘째 기존에 형성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체계화시키는 전략, 셋째 특정 슬로건을 강조함으로써 사전에 의도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전략이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한국은 첫 번째 전략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힘든 형태이다. 이는 국가 전반의 정책목표와 내용이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체계화하는 두 번째 전략과 특정 슬로건이나 상징을 강조하는 세 번째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 구축전략으로 판단된다.

아리랑은 언제부터 한민족 브랜드의 상징적 이미지를 확보했을까. 아리랑 원형에 대한 인식은 구전성과 기록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체가 확인되는 것과 수용자의 기억 가능한 것까지를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형은 기억할 수 있고 추정 가능한 단계의 존재하는 원본적 유전자다. 구한말 미국인 선교사로 고종의 밀사이기도 했던 헐버트(H.B.Hulbert : 1963-1949)는 한국을 소개하는 잡지인 『Korea Repository』에서 “아리랑은 한국인의 쌀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시인 고은은 “아리랑은 고난의 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관우(千寬宇 : 1925-1991)도 1957년에 “아리랑이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로 대접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닌 그 이상의 상징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대표민요와 민족정서의 상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먼저 민요로서 구비전승적 특징과 사설을 통해 참요적(識

7)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 활용과 문화콘텐츠」, 『한국민요학』 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175쪽.

8) 인문콘텐츠학회, <왜 인문콘텐츠인가?> 발표요지집, 2002.

諛的) 특정 메시지를 드러냈다.⁹⁾ 상호간에 전달하는 매체적 성격, 아리랑만의 특수성으로 일제강점기 나운규 영화 <아리랑>이 파급되면서¹⁰⁾ 지니게 된 민족정서의 대표 상징성과, 아울러 여러 지방 분포된 아리랑이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¹¹⁾ 또한 국가 브랜드란 이름, 상표에서 출발한 단순한 정의를 넘어 상징과 문화적 특징, 가치를 대변해야 되기¹²⁾에 이에 아리랑은 더없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아리랑의 대중적 공유 시기는 19세기 말이다. 아리랑에 대한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아리랑타령의 1894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경북궁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서로 나누었을 정도라는 점에서 향토아리랑이 광대들에 의해 불리지고 이를 계기로 집단으로 확산한 듯하다. 왜 이전에는 실제 사실이 없을까. 또 허경진이 소개한 『신찬 조선회화』(박문관, 1894) 속의 아리랑 사설 3편이다. 이는 험버트가 1896년 아리랑 악보를 남기게 된 것과 맞물려 있다. 이상준의 『조선잡가집』의 아리랑 타령으로 주목된다. “아리랑 아라 아라리요 / 아러랑 알성 아라리아/ 산도 싫고 물도 싫은데 //누구를 바라고 여기 왔나/ 아리랑 아라라 아라리오 / 아리랑 알성 아라리아”(아리랑, 『신찬 조선회화』)¹³⁾의 사실이 과연 아리랑의 원형인가. 통속-창작 아리랑은 근대의 매체 확산과 시대적 저항 정서로 힘을 발휘하였다. 근대 이후 통속아리랑의 흐름에는 선동적 정치민요의 구실이 작용하였다. 이 경우 실제로 원형의 인식은 관념적일 뿐 구체적이지 못하다.

아리랑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다. 향토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영서지역에서는 아라리, 어러리, 메나리, 중남

9) 이창식, 「민요의 정치시학」, 『비교민속학』 26집, 비교민속학회, 2004, 103-110쪽.
 10) 김종욱 편, 『춘사 나운규 영화전작집』, 국학자료원, 2002, 585쪽.
 11) 김홍련,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아리랑의 확산과 의미변천」, 『음악과 민족』 31집, 민족음악학회, 2006, 227-228쪽.
 12) 황인미, 「아리랑의 브랜드화 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9, 30-31쪽.
 13) 허경진, 「19세기 인천에서 불려졌던 아리랑의 근대적 성격」, 『동방학지』 115집, 연대국학연구원, 2002, 257-268쪽.

부 지방에서는 아라성, 아리랑 등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강원도에만 약 500종의 아리랑이 전승되고, 문경, 밀양, 진도, 부산, 원산 등의 아리랑이 전승되고, 밀양, 진도, 부산, 원산, 연변 등의 아리랑에 정선아라리의 사설이 접합되어 있는 데서 아리랑의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000년-2002년에 있었던 강원도에서의 민요 조사 『강원의 민요』 I·II에서 채록된 강원도 아리랑 편수에서도 아리랑의 전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아라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엮음아라리, 자진아라리 등이 전승하고 있다. 지역별 현장에서 소리꾼들이 부르는 아리랑은 비교적 향토성을 지닌 채 전승되고 있으나, 단정적으로 아리랑의 분류 또는 원형이라고 느끼기에는 한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민요 아리랑을 부르는 것은 표현행위로 지역 사람들의 문화생산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아리랑의 상상력과 자극 행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에 있었던 강원도에서의 아리랑조사 『2008 아리랑 현황조사보고서』에서는 지역민의 아리랑에 대한 인식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조사를 통해 본 지역민들은 아리랑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적절하다는 데 높은 동의의 뜻을 나타냈으며,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민요와 어울릴 수 있는 공연·음악을 문화상품화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홍보 및 캠페인, 국제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아리랑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고, 아리랑이 한국을 상징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리랑이 단일 브랜드로서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통일된 연상이 가능하도록 아리랑 고유의 시겨내쳐(Signature)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나타났다.¹⁴⁾

아리랑의 등재는 또 다른 브랜드를 높일 것이다. 이미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신청을 위해 다양한 집단과 사람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2011

1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아리랑 현황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9, 60-62쪽.

년 8월에 아리랑 연구 지방정부,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 등 주도단체,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자문회의를 열고, 신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등재 추진 관계자 의견에 따라 2011년 12월 중앙정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대표목록 등재종목으로 아리랑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신청 결정을 중앙정부(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에 홍보하고 또한 중앙 정부에 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등재신청서는 2011년 9월부터 한국 민요 전문연구단체인 한국민요학회에서 아리랑 주요연구자들이 관련 보존단체의 면담자료와 핵심 전승자의 전승활동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하였다. 7명의 전문가는 3회의 회의와 등재 전반에 대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아리랑 보존 관계자들은 대부분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에 대한 관심이 컸고, 아울러 지역공동체와 관련 단체, 전승자들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원과 협력의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아리랑 전승 주체는 관련 전승자료와 적극적인 면담의 호응으로 등재 가치와 지속적인 활동에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승활동 사항과 정리자료 정보를 정리하였다. 등재가 확정되면 아리랑의 브랜드 활용 가치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통시적 계통과 민요권의 차이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필자는 화천, 영월, 태백, 제천, 음성 등의 지역에서 아리랑의 현장 판도와 전파 분포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아리랑의 현장적 기능은 창곡과 사설, 창자 등의 관계망 속에서 읽어야 생명력 있는 현장성과 미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적 인식 위에 아리랑의 원형과 본질적 가치를 따지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통속아리랑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현장전승의 향토아리랑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아리랑 원형론은 분명 생산적 담론이 아니다. 다만 민족사족적 위에 서사 속의 김산류 아리랑, 나운규류 아리랑, 조정래류 아리랑 등도 저항적 원형 곧 역사소산의 문화적 소스로 인식해야 한다. 통속아리랑이든 향토아리랑이든 삼재론의 천(天)원리로서 저항의 유전자 이미지

는 재생산의 자극 유혹에 대한 가치-참요(讖謠) 전통-로 역사 문면에 지속적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한류 근원의 좋은 잠재 이야기 요소이기도 하다.

(2) 지역형 감성과 놀이: 아리랑의 상생과 재미

전통민요의 소리꾼은 개별문화로서 살아온 내력의 문맥과 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¹⁵⁾ 일정한 문화권에서 전승되어온 구비민요는 나름대로 한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어 적응해 온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¹⁶⁾ 지역문화의 문화콘텐츠 중심 테마는 원형의 가치화와 이를 문화산업화하는 것이다.¹⁷⁾ 지역민의 주제적 참여가 반드시 따라야 차별성이 있다. 지역의 이미지에 이끌려 찾아오는 관광여행도 이러한 차별성의 이동 행위다. 지역 혁신화 역시 이러한 과정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미래에 대한 전략분석인데 창조도시의 당위성을 논의하면서 강조하였듯이 문화가 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에는 그 지역문화의 독창성 내지는 차별성이 깊숙하게 내재하고 있다.

지역마다 향토성과 세계성을 강조한 축제민요를 살리고 있다. 정선과 진도, 밀양 세 곳의 아리랑은 지명도 덕분에 일찍 아리랑축제를 시작하였다¹⁸⁾. 밀양아랑제는 영남아리랑이 지닌 흥겨움을 살리고 아랑전설에 바탕을 둔 지역축제다, 진도아리랑제는 구성저서 능청거리고 정한 맛을 살리면서 남도 공연예술을 연결시킨 지역축제다. 정선아리랑제에는 창곡 자체가 서정적 유장함으로 흘러내리고 단백한 신명이 있고 애처로움이 배어 있다. 정선아리랑제는 그 특성을 살려 시작한 지역행사용 축제였다. 그 지역의 풍토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리랑축제에는 토착성과

15) 강진옥, 「여성 민요창자의 존재양상과 창자집단의 향유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5-32쪽.

16)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 활용과 문화콘텐츠」, 앞의 책, 197쪽.

17) 이창식,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115-119쪽.

18) 권오성, 「아리랑의 상징성과 세계성」, 『아리랑의 세계화와 영남아리랑의 재발견』,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 2009, 3-9쪽.

지역적인 현실성, 민간전승다운 전통성, 그리고 주어진 지역 사람들의 편향성이라는 소리문화의 특성이 드러나 있다¹⁹⁾.

한국 수백여 개의 지역축제 항목에서 공연문화행사는 전 예술에 걸쳐 광범위한 위치를 매김하고 있다. 현대 지역축제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축제 중 사라지는 이벤트형 축제도 증가한다. 이벤트형 축제로 인해 이벤트관광이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벤트관광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지역축제와 특별이벤트를 관광자원화하여 특정 장소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기획, 개발, 마케팅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함평나비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가치를 지속가능성으로 창출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하면서 지역성을 홍보하고 있다. 현대의 지역축제는 지역문화를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된 것이며, 인공성의 축제이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창조 작업이다. 이 활성화 작업에 온갖 기획, 집행이 총체적으로 집약됨으로써 그 과정이 일종의 종합예술문화로 다듬어진다.²⁰⁾

아리랑의 축제화 성공 여부 관계없이 축제현장에서는 어울림의 기능이 있다. “정선어러리 착착접어서 거래걸빵을 해지고/영월읍에 저자골목에 어러리 팔러갑시다”(「아라리」)²¹⁾처럼 사설은 현장에서 듣고서 아리랑이 살아있는 생동체라는 것을 느꼈다. 아리랑 부르기는 누구나의 공유물처럼 어울려 맛을 낸다. 가창자 개인별로 보면 다분히 자위적 뉘트리인데 삶의 현장에서 주고받는 공동작 인식이 존재한다. 아리랑에 대한 삶의 공동체 의식에서 더불어 어울리는 상생의 발상에까지 확장되는 자체가, 축제의 한마당 요소가 있다. 확대하면 남북 공통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 키워드로 자리잡은 민족 소리라는 점이다.²²⁾ 이는 소리의

19)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활용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17-151쪽.

20) 이창식, 「지역문화콘텐츠의 원형자원과 품바축제」, 『공연문화연구』 제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307-308쪽.

21) 이창식, 『서강민속을 찾아서』, 집문당, 2003, 94쪽.

원형에서 오는 축제적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 놀이의 재미와 어울림의 신명이 있다. 어떤 장르보다 아리랑의 역동성이 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아리랑의 놀이적 집적은 다시 시간적 확대 재생산의 축제판의 성격을 지닌다.

아리랑의 축제적 최대공유인자는 민족시가로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랑은 한민족문화를 표상하는 소리요, 한민족 애국가로, 누구나에게 상징화된 측면이 있다. 코리아 영화처럼 그 영역 또한 남북한 구분 없이 어디에나 있다. 이념의 한계, 지역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는 여전히 아리랑의 공유성을 확인하게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일본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 아리랑이 살아 숨쉬고 있다.²³⁾ 아리랑 부르기는 음주가무를 즐겼던 동이족의 기질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리랑이 춤으로 표상할 때 열림, 보듬음, 풀림, 나눔, 펼침, 떨침 등으로 나타난다.²⁴⁾ 자생적 아리랑이 한민족라는 정서로 공동시작화한 사례다. 이는 아리랑의 융합학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아리랑의 연원이나 해석이 열려 있는 자체가 아리랑 전승물의 체계화에 대한 한계다. 민요로서의 아리랑은 향유층의 놀이적 정서와 현실적 의식을 대변한다. 아리랑의 놀이적 성격은 향유층의 소리품을 판다는 의식에서도 보인다.²⁵⁾ 아리랑의 시적 자질은 삶의 밑바닥에 우리나라 서정에 기반하면서 역사적, 사회적 대응력이 나타난다. 특히, 다른 문학 장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부응의 측면이 여러 군데 두루 나타난다.

기록 문학에서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이별의 상황이 투박하게 묘사되었다. 아리랑은 민중 생업활동의 실상에 깊게 뿌리 내린 탓이다. 눈물이 묻어나고 때로는 한숨이 배어 있다. 아리랑의 다양한 사설들을 살펴보면

22) 김연갑, 『아리랑 - 그 맛, 멋 그리고...』, 집문당, 1998, 136-146쪽.

23) 이창식,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2004, 51-76쪽.

24) 박민일, 『아리랑정신사』, 강원대 출판부, 2002.

25) 김시업, 『정선의 아라리』, 성균관대 출판부, 2003, 18쪽.

반복과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애타는 심정을 진솔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희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그 본질에는 자위적 기능으로 놀이하는 인정의 즐거움이 있다. 즐길 줄 아는 사람들만의 대표적인 소리문화가 아리랑의 노래 항목이다. 김 땃힘의 소리나 풀림의 소리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더구나 엮음아리랑은 이탈의 재미가 있다. 아리랑은 민족시 또는 구비시로 '판'에 따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열린 장르다. 음악문법으로 강원도 아라리가 그러한 성격의 원형성을 간직하고 있다.

아리랑의 본질에는 생리현상의 농경문화적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풍류적이기보다 민중적이고 인간적이라 해야 옳은 표현이다. 아리랑의 민중적 성격은 근대이행기에 유희적이고 저항적인 이중성을 지녔으나 본래에는 농경의 실무성과 부합한다. 삼재의 원리로 승화될 소지가 있다. 민중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으나, 신바람이 지피면 진정성을 얻는다. 그만큼 다채롭고 다채로운 만큼 그 항목이 세계적이라는 데 있다. 단순히 계량적 수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아우름을 담고 있는 소리문화라는 점이다.

아리랑에는 정한이 짙게 배어 있지만 때로는 웃음을 촉발시키고 웃는 마당 속에 숙연함도 느끼게 한다. 또 아리랑은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현장에는 틀을 깨는 소리다. 기능성이 강조되는 노래지만 상황에 따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대응력이 강한 열린 장르성을 가지고 있다. 아리랑의 미학은 고유성의 애절함에도 그 가치를 부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열린 변화성도 주목해야 한다. 정과 한이 신명의 아우름을 변화된다. 이 점이 고구려 벽화의 삼족오, 원효의 화쟁처럼 농경문화가 무너지가는 시대에 농경적 상상력과 인본적 감성이 정보화 시대에 또 다른 문화층위의 인자로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아리랑의 심층적 원형원리에 대하여 문사철 위주의 인문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정선과 진도, 밀양의 3대 아리랑은 향토민요인가, 전통민요인가. 흔히 이곳은 아리랑의 원형지역이라고 한다. 이곳에 불리는 아리랑은 가창자

의 생업 공간인 삶의 현장과 밀착되었고, 그 풍토의 원형성을 고스란히 간직하였다는 점이다. 밀양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의 빠른 토리에 경상도 메나리 정조가 있고,²⁶⁾ 진도아리랑은 육자배기의 영향으로 밀양아리랑과 같은 정한 맛이 있고, 정선아리랑은 자진과 엮음이 다르듯이 늘어짐의 느낌과 촘촘하게 서둘러가는 신명이 있다.²⁷⁾ 밀양아리랑은 우아미가 강하다. 그런데 정선아리랑은 서정적 비극미와 해학미가 배어 있다. 진도아리랑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²⁸⁾ 그 지역의 풍토적 토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리랑의 전승과 연행에는 토착성과 지역적인 현실성, 민간전승다운 전통성, 그리고 주어진 지역 사람들의 편향성이라는 속성이 반영되었다.²⁹⁾ 이런 아리랑의 지방색 요소를 살려 지역축제화하여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2012년에는 상주아리랑축제(2012.4.14.-2012.4.15.), 계산동아리랑고개 일원에서 열리며 역사문화의 재조명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지향), 성북아리랑축제(2012.5.1.-2012.5.31,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촬영지로 알려진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1997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재·전통문화와 결합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성북구의 상징적인 축제), 아리랑 아라리요(2012.6.2,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자 그에 대항하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중국으로부터 한국 아리랑을 지키자는 의지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천지진동 페스티벌Ⅱ-아리랑 아라리요’를 개최), 정선아리랑제(2012.10.1-2012.10.4, 일명 아라리라고도 하는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존과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한국적인 민속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976년부터 열리고 있다. 2012년도는 ‘숨결이는 바람의 소리, 함께하는 아리랑’이란 주제로 한 축제로 정선의 이미지 상승과 세계화 축제를 도모하고 있다), 정선

26) 김기현, 「밀양아리랑의 형성과정과 구조」, 『민요론집』 4호, 민요학회, 1995, 95-121쪽.

27) 김시업, 『정선의 아라리』, 성균관대 출판부, 2003, 8쪽.

28) 이소라, 『농요의 길을 따라』, 밀알, 2001, 94-95쪽.

29)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활용과 문화콘텐츠」, 앞의 책, 117-151쪽.

아리랑극(2012.4.7-2012.12.2, 정선아리랑극은 1999년 아리랑연극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다가 정선아리랑 창극과 한국뮤지컬의 시기를 거쳐 2009년 정선아리랑극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었다. 정선아리랑을 토대로 극적인 구성을 가진 새로운 공연의 형태로 고유 전통과 민속 그리고 역사와 민족성을 아리랑의 효시인 정선아리랑을 토대로 극을 통해 새롭게 구현함을 목표로 함) 등을 통해 현장감보다 공연용 이벤트로 접속하고 있다. 그 곳에 가면 아리랑의 질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리랑을 부르는 소리꾼은 아리랑 유산의 주체다. 실제로 민중의 삶에 뿌리내려 투박하지만, 자위적 기능으로 불려져 울림과 어울림의 소리를 듣는다고 느낀다. 삼재론의 지(地)원리로서 공동체의 상생미학이다. 자연스럽고 타고난 표출방식의 노래문화가 그 곳에 있다. 화자인 소리꾼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아리랑을 부르면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가 있어 신명이 난다고 하였다.³⁰⁾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극적 희로애락이 연출된다. 소통과 상생의 원리에는 아리랑 특유의 내적 에너지가 작용한다. 이는 열린 장르적 성격인데 그 변신의 무한대가 주목된다.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도 이 점에 이끌리고 있다.

(3) 융합형 치유와 소통: 아리랑의 보편적 가능성

노래 문화로서 민요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 대응력도 강하다. 아리랑은 오늘의 노래 문화, 특히 대중가요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해준다.³¹⁾ 대중가요의 주류는 주제의 편향이 심하여 우리의 생활을 고르게 노래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가요의 주류의 대부분의 노래양식은 문제의식이 살아 있지 못하여 통속적 정서의 소비만 거듭 이루어질 뿐,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실종되어 있다. 대중가요를 문화예술로서

30) 이창식,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민요론집』 6집, 민요학회, 2001, 322-324쪽.

31)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 콘텐츠, 아리랑학」, 앞의 책, 189-199쪽.

인식하기보다는 향락적 오락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런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 이래 어느 시대에도 그에 맞는 노래는 항상 있었다. 신라에는 향가가 있었고, 고려에는 경기체가나 속요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악장, 가사, 시조, 잡가가 있었다. 근대이행기에는 창가, 트로트, 통속민요가 있었다.

그러나 아리랑만은 시대의 변천에 구애됨이 없이 쉬지 않고 한민족의 가슴에 스며들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리랑은 한민족 모두의 감정과 욕구, 꿈과 정신이 뒤엉킨 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것이다. 아리랑은 고유한 문화적 수요가 거의 고갈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당대 문화의 결핍요소를 채워 줄 수 있는 민요의 문화적 기능을 살릴 수 있다.³²⁾ 아리랑의 미래지향적 기능은 민속문화의 힘이고 나아가 민속예술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³³⁾ 아리랑 소리도 남한에서는 정선, 진도, 밀양 등지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민요가 되었고, 북한 평양에서는 ‘아리랑축전’이라는 이름의 대동제 민요로 형상화되었다. 남한에서는 현재 판소리처럼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월드컵 붉은악마 열기 같은 초대형 집체무지컬을 진행하고 있다.

분명 아리랑 소리는 민족의 노래문화라는 사실이다. 남과 북, 해외까지 한민족이 사는 곳 어디에서든 민족자존의 마음처럼 불러져 오고 있다. 50여 종의 갈래에 8천여 수의 노랫말이 곳곳에 남아 있다. 2001년 세계유네스코가 아리랑상을 제정한 것이 이러한 상징적 가치 때문이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문화유전자를 함축하는 존재감이 있다. 공동체의 신명과 같은 감성이 자리하고 있다. 크게 하나되는 어울림 정신의 대동성이 스며 있다. 국가모순, 체제모순, 민족모순을 녹일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가치창조할 수 있는 통일담론이 나와야 한다. 아리랑을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소리잔치,

32) 박용문, 「초등교육현장에서의 정선아리랑 전수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정선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관동대 교육대학원, 2009, 14-15쪽.

33)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 활용과 문화콘텐츠」, 앞의 책, 2002, 178쪽.

얼마나 벽찬 감동인가. 남북이 아리랑정신으로 통섭의 장을 열 수는 없는가. 지금은 문화감성시대다. 과거의 축적된 아리랑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열린 아리랑 콘텐츠사업이 필요하다.

소리현장에서 소리꾼들과 어울려 보면 아리랑이 나름대로 정서를 자극하는 놀이도구임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이란 말만 떠올려도 소리의 본향이 있다. 아리랑의 향수성은 고향 이미지와 모성적 회귀의 정서를 연관짓는 것이다. 산과 물,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저절로 우리나라 소리임을 받아드린다. 아리랑의 미적 가치에 대하여 정서적 순화성 생태성에서 매력을 찾고 있다. 순화성은 아리랑의 가장 소박한 성향이다. 아리랑의 현재적 관심은 어디든 어울리는 친연적 인본주의 성향과 끈질긴 생명의 소리로 이 땅의 다수 사람들의 자화상처럼 느끼는 데 있다. 아리랑의 한국적 정서, 토착적 선율, 민중취향의 전승물 차원을 아우르면서 고유문화의 정체성 연구와 아울러 시학적 연장선 위에 철학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리랑에 대한 계승적인 작업에 1차적인 기반은 소리꾼의 정서적 이야기담론을 주목해야 한다. 아리랑의 활용방안 역시 이벤트와 축제 틀에서 보아서는 생명력이 없다. 아리랑 원형자원의 다양한 쓰임새(One Source Multi Use)라는 문화산업적 창작 전략이 요청되는데 이때 원형은 아리랑 향유층의 정서적 이야기(사실을 포함한 전승물)인 것이다. 기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털 왜곡된 본래 전승 체계다. 이러한 아리랑의 원형적 자료를 이용해 타 갈래로 하이퍼화하는 창작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 자체가 아카이브 구축으로 이어져 아리랑박물관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위기다. 아리랑의 가치창조화는 이러한 종합적 자료 체계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리랑의 디지털스토리는 IT관련 과학이 창조하되, 그 동안 신화적인 또는 신념에만 매달려 신비적 경지를 현실화해 보인다.

아리랑의 상징성이 남북 모두 한민족문화의 대표격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가치창조 방식은 사뭇 다르다. 다만 민족의 공동체 소리문화유산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³⁴⁾ 음악적 기층문법으로 보

아 자위적 성격이 강한 탓으로 보편적 가치성을 두루 공유하고 있으나, 활용과정에서는 약점도 노출하였다. 토속성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유동성도 강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운규 영화 <아리랑>류의 저항적 인자가 녹아있는 지역 소리문화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최근 <디워>영화와 <영웅>뮤지컬에서 아리랑의 활용에 있어서 가치를 복한 아리랑집체 공연과 다르게 비판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아리랑은 열린사회에서 신명의 소리다.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복돋는 사설이 많다. 아리랑은 닫힌 사회에서 막힌 것을 풀어내는 소리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병이 날 것이라는 한 맺힌 응어리가 사설에 나타나 있다. 세상살이 중에 사랑하고 놀이하고 이별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님은, 시적 화자 또는 노래하는 이에게는 정서 표출의 대상이다. 그 님에 대해 응어리지고 매듭진 안달의 한을 푸는 노래부르기가 기본적인 아리랑의 구연방식이다. 마음에 앙금진 수심이 밤하늘의 별보다 많다고 하였다. 이주 해외동포의 디아스포라에서부터 강원도 비탈고개 소리꾼의 아리랑 소리 부르기 촌스러움처럼 이를 자연스럽게 여과하는 한풀이가 아리랑의 내재적 가치다. 어두운 시기에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이고, 실제 삶터나 놀이판에서는 오히려 신명을 불러일으킨다.³⁵⁾ 아리랑의 놀이적 성격은 개방성과 맞물려 있다. 지게 소리로 물바가지 소리는 울골차며 신명을 끌어올리던 것이다. 지게의 놀이도구는 소리의 자연스러운 어울림 악기이며 물바가지 역시 울림의 원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속에 건강한 율동미와 어깨 들썩임이 있다.

민요로서의 아리랑은 민중의 정서와 의식을 대변한다. 아리랑의 예술적 가치는 삶의 밑바닥에 뿌리내린 냇두리에서 우리나라 서정적 요인에 연유한다. 서정성의 원리에는 소리문화의 원형질이 담지되어 있다. 특히,

34) 김영순, 「향토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과 변용』, 북코리아, 2011, 157-176쪽.

35) 임경화, 「민중의 소리 아리랑의 창출」, 『근대의 노래와 아리랑』, 소명, 2009, 413-521쪽.

다른 문학 장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솔한 사랑의 정서를 보게 된다. 아리랑의 인본적 상상력은 자연과 연관된 친연성에 비롯된 것이다.³⁶⁾ 아리랑의 진실 드러내기는 친자연적인 비유를 통해 그 절묘한 맛을 보태고 있다.³⁷⁾ 결국 융합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아리랑의 매력은 어디든 어울리는 친연적 인본주의 성향과 끈질긴 생명의 소리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화상처럼 느끼는 데 있다.³⁸⁾ 삼재론의 인(人)원리로서 사람 중심의 진정성이 내재한다. 아리랑의 한국적 정서, 토착적 선율, 민중취향의 전승물 차원을 아우르면서 한국 고유문화의 가치창조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아리랑의 원형성은 창조적 유전인자인 동시에 향유층이 오랜 세월 공감해온 핵심요소인 것이다. 아리랑에 대한 가치 부여가 문화감성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아리랑 유산의 스토리텔링과 킬러콘텐츠

세계화 방식은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접근과정을 제안한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에 창작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유와 정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 생산체제다. 가공하는 행위이지만 수요자 만족 중심에 우선하여 지식기반 산업화하는 방식이다.³⁹⁾ 아리랑 스토리텔링 창작 단계는 장르의 설정과 장르의 파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새로운 아리랑 창조물이 등장할 것이다.

아리랑 콘텐츠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기존 진행형도 다시 비판하면서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미래의 아리랑 킬러콘텐츠 등장을 예견

36) 이창식,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앞의 책, 321-323쪽.

37) 김시업, 『정선의 아라리』, 성대출판부, 2003, 15-19쪽.

38) 이창식, 『민속문화의 정체성 연구』, 집문당, 2001, 240-246쪽.

39) 이창식,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115-119쪽.

「표」 아리랑 스토리텔링 창작과정 단계

단계	내용	착안	비고
1	아리랑 인문학적 연구와 원형 정체성 확보	문화원형 고찰	분석화
2	아리랑 가치창조연구와 동시대적 트렌드 확보	리소스 세분화	가치화
3	아리랑 스토리텔링 창작과 킬러콘텐츠 만들기	감정, 상상력 접근	집약화
4	아리랑 멀티디지털 기술 창출과 수요자 반응	스토리텔링 마케팅	진행형

하면서 앞서 논한 아리랑 유산의 현상적 가치-삼재론 중심의 소스-를 고려하여 「표」처럼 세 가지 지향을 제시한다. 일반 서사 스토리텔링 전략 요소(플롯, 캐릭터, 공간)를 넘어서서 특수성(참신, 고유, 상징....)과 보편성(친근, 재미, 미래....)의 초장르론을 조화시켜 가야 한다.

(1) 팩션지향: 감성과 상상력의 아리랑 스토리텔링

노래문화로서 민요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아리랑과 같은 민요는 오늘의 노래문화, 특히 대중가요의 문제를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해준다. 대중가요의 주류는 주제의 편향이 심하여 우리의 생활을 고르게 노래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가요의 주류의 대부분의 노래양식은 문제의식이 살아 있지 못하여 통속적 정서의 소비만 거듭 이루어질 뿐,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실종되어 있다. 대중가요를 문화예술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향락적 오락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런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 이래 어느 시대에나 그에 맞는 노래는 항상 있었다. 신라에는 향가가 있었고, 고려에는 경기체가나 속요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악장·가사·시조·판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아리랑만은 시대의 변천에 구애됨이 없이 쉬지 않고 겨레의 가슴을 적시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리랑 유산은 우리 민족 모두의 감정과 욕구, 꿈과 정신이 뒤엉킨 복합적·총체적인 것이다.⁴⁰⁾ 아리랑은 고유한 문화적 수요와 향유가 거의 고갈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당대 문화의 결핍요소를 채워 줄 수 있는 민요의 문화적 기능을 살릴 수 있다. 아리랑의 미래지향적 기능은 민속문화의 힘이고 나아가 민속예술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⁴¹⁾

아리랑 소리도 남한에서는 지역축제(정선, 진도, 밀양 등)라는 이름으로 축제민요가 되었고, 북한에서는 ‘아리랑축전’(평양)이라는 이름의 대동제(大同祭) 민요로 형상화되었다. 남한에서는 현재 판소리처럼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노력하고, 북한에서는 월드컵 붉은악마 열기 같은 초대형 집체뮤지컬을 꿈꾸고 있다. 아리랑 소리는 민족의 노래문화라는 사실이다. 남과 북, 해외까지 한민족이 사는 곳 어디에서든 민족자존의 마음처럼 불러져 오고 있다. 50여 종의 갈래에 8천여 수의 노랫말이 곳곳에 남아 있다. 2001년 세계유네스코가 아리랑상·현재 중단·을 제정한 것이 이러한 상징적 가치 때문이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유전자 압축과일같은 존재다. 대동정신의 신명과 같은 감성이 자리하고 있다. 크게 하나되는 어울림 정신이 있다. 국가모순, 체제모순, 민족모순을 녹일 수 있는 창조적 힘과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가치창조할 수 있고 통일담론이 나와야 한다.

아리랑을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동 한마당은 매력적이다. 남북이 아리랑정신으로 통섭의 장을 열었던 기억이 있다. 문화감성시대에 과거의 축적된 아리랑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열린 아리랑 콘텐츠사업이 필요하다. 아리랑에 대한 인문적 기반은 여러 측면에서 소통되어 축적된 성과물을 가지고 있다. 아리랑은 지역에 자리한 향토민요가 대중성, 민족성, 집체성, 전승성 등을 확보하면서 한민족의 상징 소리문화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한 마디로 변신과 창조의 일면이 작용하였다. 아리랑 문화산업화는 무형문화재를 되살리는 이상

40) 박용문, 앞의 책, 2009, 14-15쪽.

41)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 활용과 문화콘텐츠」, 앞의 책, 178쪽.

의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는 데-타자 입장의 수용하기 고려-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원형가치의 보존을 중시하면서 전승현장의 확장과 더불어 예술적 창작의 변신은 더욱 전문되어 세련성을 더할 것이다. 관련 설화나 역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역 아리랑의 미학을 녹여낸 작품인데, 일정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⁴²⁾

아리랑의 매체 접목은 동시다발의 피칭워크샵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식 미디어 생태학적 접근의 문화콘텐츠 전문화 단계에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아리랑에 대한 창조적 인식은 서사양식의 수용이나 무형문화재 공연과 지정에 국한해서는 부족하고 그 자체가 독자적인 문화 패러다임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향유층이 생각을 알고 이야기하게 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아리랑의 메시지를 접속해야 하는 단계다. 농경 관련 전통사회처럼 생생하게 원형을 전승시킬 수 없으나, 소리의 전통성을 지킨다는 신념 속에서 여전히 계승된다는 자체도 중요하다. 아리랑의 재창조야말로 문화감성시대에 문화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리랑 역사의 현대적 수용은 21세기형 문화 흐름으로 소통해야 한다. 아리랑 역사의 감동적 이야기 비밀을 집중적으로 연계해야 한다.⁴³⁾ 몇 군데 단체와 지자체에서 이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고무적인데 등재 노력에 비해 아리랑 콘텐츠의 전문성과 활용성 부문에서 미약하다.

한류 부응 스토리텔링 : 아리랑의 팩션(faction) 분야

■ 키워드: 저항-저항성

■ 기본 아이디어 : 한류 K-드라마, K-영화가 그러하듯이 아리랑의 역사가 근원적으로 좋은 이야기이다. 아리랑 스토리텔링으로 공연, 영화 등을 고려해볼 때 역사적 사실

42) 이현수, 『전승현장과 변이양상』, 민속원, 2006, 252-256쪽.

43)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 2011, 91-104쪽.

과 연결시키는 방향도 수요자인 일반 대중, 곧 문화취향의 관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고 보인다.

■ 활용 항목사례의 제시

- 도미와 아랑(娥郎) 이야기: 아리수(한강) 배경, 피리소리 등
아르랑 아르랑 아라리요 / 아르랑 얼시고 아라리요- 「아랑가」
- 원효 무애가 아리랑타령: 화쟁아리랑의 뮤지컬화
- 연변 정암촌 아리랑과 이주사 악극화: 필자 편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청주아리랑』
- 김구 상해임시정부와 광복아리랑 역사극화: 김구, 안중근, 우덕순, 윤봉길 등 인물전 판아리랑
* 안중근 소재(영웅) 뮤지컬 참고
- 정신대 아리랑 진혼콘텐츠: 노수복 등 할머니 이야기의 문학콘텐츠
- 아리랑의 노래: 오키나와로부터의 증언(16mm 컬러 영화, 참조)
- 춘천 의병아리랑과 의병마을 문학콘텐츠: 윤희순(제천 '정'극단 대표) 여성의병장 스토리, 의암제의 춘천의병아리랑 현무
- 1980년대 「아리랑」 마당극과 아리랑굿판 복원: 마당극 장르 복원 (민요연구회, 노래패 자료)⁴⁴⁾
- 민중극 「노비문서」는 몽골의 침입으로 충주성 노비 5천명이 싸우던 줄거리, 충주 마수리 아라성 접목 가능성

■ 실제 스토리텔링 사례의 제시

- 명칭 : 뮤지컬 아랑극
- 내용 특징
 - 아랑 이야기 관련 창작품 활용
 - 물과 관련된 아리랑 흐름 각편 연계
 - 「아랑가」 등 변이변용화

44) 임진택, 『민중연희의 창조』, 창비, 1990, 51-61쪽.

- 출전과 근거 : 『삼국사기』, 최인호 소설, 「산유화가」 관련 자료 등
- 팩션 연구
 - 문헌 근거 자료 서사 분석
 - 아리랑의 감성 상상력 연동
- 활용가능 분야 : 아리랑시극(연극)
- 연계 활용 확대 : 테마투어 기획 등

■ 실제 작품 사례의 제시

- 명칭 : 2012 정선아리랑극 ‘어머이’
- 내용 특징
 - 아리랑으로 전해져 오는 어머니를 위한 진혹곡
 - 아리랑 속의 고향의 향수와 넉넉함 풍요로움, 정신적 위안을 극으로 승화
- 극의 내용
 - 제1과장 길놀이 : 아리랑고개 너머 아리랑의 고향인 정선으로 돌아와 역사 속으로 관객 인도
 - 제2과장 1940년 정선골 : 일제강점기의 착취 속 희망의 아리랑과 마을 지주의 횡포로 마을처녀를 위안부로 보내려하자 꼬마신랑에게 어머니를 보내고 시집살이 시작
 - 제3과장 1945년 정선골 : 꼬마신랑이 성장하여 떼를 타고 떠나 일 년이 지나야 오는 세월반복으로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신랑 찾아 서울로 떠남
 - 제4과장 1950년 한국전쟁 : 신랑과 재회한 어머니와 그곳에서 맞은 한국전쟁의 깊은 아픔을 안고 아리랑고개를 넘음
 - 제6과장 뒷풀이 : 어머니를 위한 아리랑진혹곡이 메아리가 되어 상생과 평화의 의미를 노래, 깊은 울림의 아리랑으로 민족의 신명을 깨우고 아리랑고개 너머 모두가 하나됨

■ 스토리텔링 마케팅: 관광 스토리텔러 위주의 아리랑 체험형 투어리즘 조성

(2) 놀이지향: 신명과 재미의 아리랑 스토리텔링

놀이는 감성을 키우는데 좋은 소재가 된다. 놀이적으로 감성을 키우기 위해 행복감성론을 일곱 가지 들자면, 상생공감과 윈윈, 공동승리와 배려, 긴장조직과 전략, 유희몰두와 즐거움, 필승전투와 조절, 상대필살과 관용이 필요하다. 노래는 또 놀이의 한 양식이기도 하다. 놀이는 생활의 일상적 삶의 밖에 존재한다. 그러기에 놀이의 세계에는 삶의 현실적인 긴장을 차단하는 구실이 있다. 놀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묘한 현상 때문이다. 그리고 노래가 우리의 흥과 신명을 돋우고 즐겁게 하는 것 역시 그것이 우리를 삶의 공간으로부터 놀이의 세계로 옮겨주기 때문이다. 아리랑의 현대적 수용은 놀이 현상에 대한 새로운 향수감각을 뜻한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 아리랑이 일노래로서 실무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놀이노래로서 노래와 놀이가 현장적 관련성을 지니고 구연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⁴⁵⁾

아리랑이 최근 다양한 모습으로 공연된다. 심지어 카지노 공간 속에 전통 소리노름을 접목하자는 특수성을 보인다. 사행성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우리에게서 현대와 전통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긴장관계를 요구하면서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화산업으로의 활용 작업은 옛것의 민속을 반영하되 새로운 예술성을 띠어야 한다.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네트워크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추진하는 관련 회사는 물론 아리랑정보센터가 지정되어야 한다. 아리랑의 계승화 작업은 놀이적인 것 찾기와 연결하여 개별성을 부각시키되 보편성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리랑의 놀이적 재미에 대한 관심의 일단이다.

45) 이창식, 「전통민요의 자료 활용과 문화콘텐츠」, 앞의 책, 176쪽.

아리랑테마박물관과 아리랑 문화공원은 새로운 지역형 감성서비스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아리랑 부르기에 대한 놀이적 작업이 요구된다. 아리랑의 문예적 성격 곧 정서와 생활 표현의 개방성을 살려, 농경의 상상력, 순수한 정감, 자연친화의 공연 등을 문화상품에 반영하는 놀이 분야의 감성항목을 확장해야 한다. 아리랑 전설, 아랑형 민담, 아리랑 상진 신화 등에 대한 감성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화, 축제 등의 정체성 찾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화되어야 한다.⁴⁶⁾ 아리랑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리랑의 문화콘텐츠산업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현재 ‘콘텐츠산업 진흥으로 국가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표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과목표로 글로벌 수출 67억 달러, 콘텐츠 매출 88조 원, 일자리 창출 63만 명,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 목표로 글로벌 시장진출확대, 미래콘텐츠 선도적 육성, 비즈니스 선진화, 창작기반 역량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확립의 다섯 가지를 이루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과제로 글로벌 부문에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킬러 콘텐츠 제작활성화, 다국어 콘텐츠 협력진출 모델 확산을 꼽고 있고, 미래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콘텐츠 시장확대 및 핵심콘텐츠 기술개발 강화, 산업선도적 정책개발 및 통계정보 강화를 꼽고 있다. 이밖에도 강소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라던지 세계적 스토리 발굴 및 상업화, 성과기반 조직역량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제작 사업으로 방송영상부분에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콘텐츠포맷 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창작 기반구축,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게임부분에선, 게임과 몰입예방과 해소, 기능성 게임 활성화 지원, e스포츠 활성화 지원,

46) 이현수, 『아라리의 전승현장과 변이양상』, 민속원, 2006, 252-256쪽.

게임글로벌 서비스플랫폼 지원, 게임기업인큐베이션, 모바일게임센터 운영,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을 한다. 만화 애니캐릭터 부분 사업으로 캐릭터창작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국산캐릭터 유통전문매장 구축, 국산캐릭터 개발프로젝트 지원, 우수만화 글로벌프로젝트 지원, 만화연재지원, 글로벌 애니메이션본편 및 공동제작지원, 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 지원, 프리프로덕션 및 단편애니메이션제작 지원, 산학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제작 지원 등 다양한 부문의 콘텐츠제작에 노력 중이다.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분야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통합하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인문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입될 수 있는 단계는 기획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획 단계의 중요한 분야인 소재 개발,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창작 등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 문화예술창작에 대한 이해,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재 개발 분야이건 시나리오 창작 분야이건 간에 이러한 인문학적 상상력, 인문학적 지식, 예술적 감각 등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적인 킬러콘텐츠를 개발해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바탕 위에 문화콘텐츠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지식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어야만 질적으로 우수하면서도 문화산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아리랑의 지식정보화 서비스가 필요하다. 아리랑의 아카이브 구축 및 지식정보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다양한 형태의 파생콘텐츠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아가 한국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문화산업 분야는 물론 순수학술 분야에서조차 한국학 자산의 지식정보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지식포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한국학진흥원, 향토문화전자대전, 국가전자도서관 등의 구축과 정보 제공 서비스는 한국학 자산의 지식정보화 요구에서 배태된 새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의 아카이브 구축이 박물관 또는 도서관식으로 집적만 되어

도, 그에 따른 무한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기획과 방법, 또는 주체의 선정이다. 예컨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와 관련하여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아카이브형 콘텐츠를 먼저 구축하고, 이어 산업형 콘텐츠를 창출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산업화를 지향하였다. 정작 원천자료를 남기지도 못한 채, 가공된 콘텐츠조차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리랑은 고유문화이기에 지켜나가야 할 옛 문화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리랑이 오늘의 우리 문화를 재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을 축제의 이벤트로 활용한다면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몇 개의 아리랑축제를 제외하고는 아리랑의 재활용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의 안목 부재와 콘텐츠 개발의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탓이다. 이를 극복하고 아리랑의 생명력을 되살리기 위해 아리랑 연구소, 아리랑 사이버박물관, 아리랑 체험학교 등이 설립되어야 한다.

아리랑 콘텐츠 개발은 한(恨)문화의 정체성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개발하는 주도세력은 특정 집단이 아닌 지금까지 그랬듯이 지역민중 오랜 경험이 있는 문화전사여야 한다. 아리랑의 창곡과 사설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한과 신명의 상상력이 녹아야 한다. 오히려 한류(韓流)의 장점에 K-아리랑에 내재된 향유층의 인정과 맛을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사설과 창곡만 의식한 아리랑 콘텐츠 창작은 매력이 없다. 인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리랑 콘텐츠 상품은 또 다른 역기능을 낳을 것이다. 아리랑의 전통적 인간화는 아무리 첨단 디지털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아리랑의 다양한 응용 논의에서 한 사상, 인간성, 인정 등 정신적 발현을 고려해야 한다.

아리랑의 전승이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재활용함으로써 아리랑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워낭소리 같은 독립영화를 만들 때 강원도지역의 아리랑

소리꾼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선정 등에도 종합조사와 자료의 아카이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지만 감성의 가치까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랑의 문화상품 만들기는 과거의 퇴고적 향수감각이 아니라 취향문화시대에 아리랑의 본질적 건강성을 오늘날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⁴⁷⁾

아리랑 콘텐츠 창작은 IT의 위세와 조화를 이루는, 현재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아리랑문화산업 모형에 대한 콘텐츠 작품을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민속예술축제의 대본 만들기 수준은 곤란하다. 아리랑 창극대본과 총체극대본은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는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원형 재현도 아니고 연출도 아닌 저급 형상화 또한 곤란하다. 생업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음주가무의 미학적 전통이 있듯이 아리랑 한류 같은 이벤트성 문화가 기획되어 창출되어야 한다. 뗏목아리랑 부문을 통해서 보듯이 스토리텔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⁴⁸⁾

아리랑 문화콘텐츠 작업은 한류의 또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아리랑 콘텐츠의 모형제시가 제안되어야 한다. 아리랑 문화콘텐츠의 의의는 단순히 문화산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의 가치에 대한 내면적 읽기가 삶의 질로 향하게 이바지하는 치유적 정서발현과 맞물려 있다. 노래문화의 치유성은 아리랑 콘텐츠 개발과 함께 거론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사물과 난타와 같은 전통적 소리를 통한 정서⁴⁹⁾의 건강성과 울격의 친생태성 그리고 한글의 구비성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리랑 문화콘텐츠 작업도 궁극적으로는 정서 치유를 염두에 둔 디지털화에 있을 것이다. 정과 한이 깊을수록 내재된 가치가 흥, 무심, 신명풀이, 치유로 승화되는 아리랑의 미학원리를 아리랑 예술콘텐츠로 입증해야 한다. 아리랑 문화콘텐츠는 지역별 아리랑축제

47) 이창식,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앞의 책, 2001, 324-325쪽.

48) 이창식, 「인제지역 뗏목민요의 원형과 활용」, 『한국민요학』 17집, 한국민요학회, 2005, 231-232쪽.

49) 강은혜, 「한국 난타 문화의 원형」, 『한류와 한사상』, 모시는사람들, 2009, 371-409쪽.

나 기존 아리랑행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임은 분명하다. 예컨대 정선읍내에는 아리랑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곳에는 정선아리랑이 녹아 있지 않다. 재검토가 필요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이 추가되어야 한다.

K-아리랑 스토리텔링 : 지역별 아리랑의 소리축제 공연화(공연문화 박물관)

■ 키워드: 상생-상생성

■ 기본 아이디어 : K-팝처럼 아리랑을 소리공연으로서 구체적,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합단위, 또는 음악적 단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활용 항목 사례의 제시

- 아리랑 소극 경창대회 : 아리랑 부르기와 60년대 마을소극 활용(사투리 연계)
- 난타아리랑 공연화 : 두두리 도깨비 이야기와 치우 붉은 악마 스토리, 점프아리랑 등
- 진도아리랑 북놀이화: 삼별초 역사극 또는 한동엽 '전대' 자서전(효일출판사, 2002)
- 정선아리랑 비보이 재창조: 세계청소년 아리랑 비보이 경합공연
- 김옥심 정선아리랑 재현과 소리극화: 주요 아리랑 대중 가수 발굴
- 밀양아리랑 마당놀이화: 아랑전설과 소리연극 재현
- 인제 뗏목아리랑 물놀이: 뗏목마을 체험프로그램

■ 실제 작품 사례의 제시

- 명칭 : 정선아리랑마을의 아리랑굿
- 내용 특징
 - 아리랑굿 형식, 아우라지 뱃사공 처녀와 낙형 선비 이야기
 - 강과 산, 생태적 녹색성 강조

- 사진아라리와 엮음아라리 조화
- 출전과 근거 : 『정선의 아라리』(김시업), 『목은집』(이색) 등
- 축제형 굿놀이 연구
 - 고려 유민 낙향과 시골스러움의 상상력
 - 아리랑의 느낌과 역동성 살리기
- 활용가능 분야 : 정선 아리랑 테마파크
- 연계 활용 확대 : 뮤지컬, 애니메이션, 지역 브랜드 등
 - 민중극 「노비문서」는 몽골의 침입으로 충주성 노비 5천명이 싸우던 줄거리, 마수리 아라성 접목 가능성

■ 실제 스토리텔링 사례의 제시

- 명칭 : 뮤지컬 아랑극
- 내용 특징
 - 아랑 이야기 관련 창작품 활용
 - 물과 관련된 아리랑 흐름 각편 연계
 - 「아랑가」 등 변이변용화
- 출전과 근거 : 『삼국사기』, 최인호 소설, 「산유화가」 관련 자료 등
- 팩션 연구
 - 문헌 근거 자료 서사 분석
 - 아리랑의 감성 상상력 연동
- 활용가능 분야 : 아리랑시극(연극)
- 연계 활용 확대 : 테마투어 기획 등

■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오락 스토리텔러 위주의 아리랑 경합형 동아리 조성

(3) 호모 컨버전스지향: 치유와 소통의 아리랑 스토리텔링

정선군에서는 매년 10월 중순에 정선아리랑과 관련하여 가장 큰 지역 행사인 '정선아리랑제'와 '학생 아리랑 예술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11월에는 '학생 정선아리랑 경창대회'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선 5일장이 서는 날마다 정선읍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정선아리랑 창극을 공연하고 있으며, 매년 8월 초에는 '아우라지 뗏목축제'가 열리는 등 많은 지역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과 민요에 관심이 있는 일부의 관계자들이 참여의 주류를 이룸으로 인해서 축제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⁵⁰⁾ 정선아리랑이 더욱 계승·발전되기 위해서는 행사참여와 홍보활동을 지방도 전국적 단위도 아닌 세계적인 범주로 확대해야 한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 기존 전승체계의 허실과 새로운 가치를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보존 관계자들은 대부분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에 대한 관심이 컸고,⁵¹⁾ 아울러 지역공동체와 관련 사람들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지방정부, 기왕 주도단체, 관계 전문가가 모여 회의를 열고, 신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대표목록 등재종목으로 아리랑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신청 결정을 문화관광체육부에 홍보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지방정부와 다양한 아리랑협회에선 아리랑 문화콘텐츠를 활성화시켜서 대중적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체, 전승자들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원과 협력의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아리랑 전승 주체는 관련 전승자료와 적극적인 면담의 호응으로 등재 가치와 지속적인 활동에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승활동 사항과 정리자료 정보를 정리하였다. 무형문화재 등재는 새로운 유산적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⁵²⁾

50) 박용문, 앞의 책, 74쪽.

51) <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국립민속박물관, 2009.11.1.

52)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현재 아리랑은 축제와 학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음원, 영상 등 많은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검색사이트인 Google에서 아리랑관련 콘텐츠는 186만 건으로 한글 207만 건에 이어 3위의 콘텐츠 분량을 보유(2009.1)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확산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⁵³⁾ 아리랑의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신청을 위해 다양한 집단과 2012 상주 아리랑축제(2012.4.14-2012.4.15), 2012 성북아리랑축제(2012.5.1-2012.5.31), 2012 아리랑 아라리요(2012.6.2), 2012 정선아리랑제(2012.10.1-2012.10.4), 2012 정선아리랑극(2012.4.7-2012.12.2) 등 다양한 행사 및 축제가 올해에도 열리고 있다.

아리랑 문화산업화의 기저에는 고부가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획득, 지적재산으로 욕망충족, 자부심의 빛깔 그리고 지역간의 문화교류 촉진 등의 목표가 전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문화생태형 유비쿼터스 창조도시로 수렴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 잠재력을 적극개발하고 육성하여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사업이 우선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살리는 창의적인 정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아리랑 유산의 가치발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집중적인 추진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아리랑 자원 인식에 대한 지역 지도자들의 실천과 의지에 대한 수행진단도 필요하다. 아리랑자원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활력인 동시에 미래임을 성찰해야 한다.⁵⁴⁾

아리랑 행사 중 이번에 세계7대 경관에 뽑힌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리랑파티(Legend of Jeju)는 ‘한라산, 산굼부리, 성산일출봉을 연출한 입체적 무대에서 제주도의 상징인 삼다도를 화합과 사랑의 감성으로 풀어나가는 신선한 감동의 퍼포먼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제주도 폴리파크

과 전승』, 민속원, 2009, 20-24쪽.

53) 황인미, 앞의 책, 35쪽 참조.

54) 이창식, 「지역혁신의 방향과 지역문화자원 활용」,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13집,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16-20쪽 참조.

에서 열렸다. 폴리파크 아리랑 파티는 ‘코리아 인 모션’에서 2007년 ‘올해의 년버벌 퍼포먼스상’과 2008년 ‘우수작품상’을 받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서 이름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한국문화를 알리는 ‘아리랑 스토리텔링 콘서트(Arirang Storytelling Concert in Toronto & Montreal)’에서는 한국스��리텔러 김승아의 의지와 열정이 돋보였다.

북한아리랑축전은 다른 측면에서 주목된다. 한국인들의 정서적 고향인 아리랑을 재조명하고, 한국 문화의 대표 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에 대한 주체시각에서 이해를 돕고자 개최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이 2010년 ‘조선민요1-아리랑’ 음반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이 음반에 북한 아리랑 축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복의 아리랑, 통일 아리랑 감성부흥 아리랑 등이 들어있으며 북한이 중국 지린 민족음악화 출판사를 통해 내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문화 아리랑 음반이 중국에서 발매 된 사실은 중국이 작년에 한국의 가야금, 씨름, 한복 등을 자기나라 고유문화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이번 아리랑 음반 발매 역시 북한과 긴밀히 손을 잡고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올리기 위해 협조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역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일이며 중국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넘볼 수 없도록 주도면밀히 대응해 지켜내야 한다.

아리랑의 변신은 한류의 진행형처럼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에 달려 있다. 다만 아리랑의 자료활용과 이벤트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리랑연구의 실상으로 볼 때 혁신적인 작업이다. 아리랑은 이제까지 온전히 전승된 면도 있으나 실천적인 방법⁵⁵⁾ 곧 활용론의 콘텐츠 측면을 이루는 경우가 별반 없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관련된 분야에서 눈요기로 이용한 경우는 많다. 다양한 문화산업이 강조되는 시점에 아리랑의 자료활용의 한 방안으로 아리랑을 이벤트화하는 과업은 숨죽이고 있는 아리랑에 하나의 숨

55) 안상경,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논문, 95-138쪽.

통을 열어 주는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전통계승이라는 중요한 목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리랑 문학콘텐츠의 개발은 무한한 것인데 전문적 활용이 되지 않았다. 아리랑의 21세기다운 문화창조의 역동적 실천수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아리랑 부르기는 예로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신명이자 한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치유원리의 문화현상이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농경시대의 퇴물 정도로 취급되어 설자리가 없어지는 실정이다. 아리랑이 설자리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신명과 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리랑에 대한 공연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산업적 아이디어가 절실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디지털기술이 필요하다. 놀이의 신명성이 제거된 디지로그시대가 인간성과 인지성을 배제할 것이 자명하기에 아리랑의 농경문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신화적 콘텐츠만들기는 매우 중요하다. 취향문화시대에 아리랑을 통한 삶의 에너지 충전과 정신적 치유의 힘을 현대의 또다른 민중 또는 대중에게 즐겁게 접촉할 수 있다. 곧 아리랑도 고객만족의 감동적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랑의 킬러콘텐츠 작업의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원초적 흡인력, 문화적 경쟁력, 상업적 공감대를 키워야 한다. 아리랑의 이해 수준을 확산해야 한다. 문광부도 아리랑 브랜드화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리랑의 지역적 네트워크 작업과 자료 통계구축과 아울러 전문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짜야 한다.⁵⁶⁾ 이 방면의 세계 각 분야별 전문가가 접속할 수 있는 가치이해의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리랑을 다시 조명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 소통에는 문제점이 많다. 언제나 아리랑은 우리와 함께 해왔고 또한 함께 호흡할 것이고 더욱이 내면 깊이 에 생동하듯이 세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리랑의 정서적 경지에 대해 아리랑 스토리텔링이 IT영역과 손잡고 아리랑의 환상을 현

5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아리랑 현황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9.

실화하여 보인다. 아리랑 관련 명품화 창조산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이를 수행할 인재 키우기 전략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리랑 연구자의 학문적 패러다임 전환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다. 아리랑 프로젝트 10만개 만들기가 장·단기계획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김치, 한글 등도 마찬가지다.

아리랑 연구는 융합학문의 길이 중요하다. 아리랑의 창조미학에 대한 가치 인식은 무형문화유산의 값어치를 넘어서는 발상이 요구된다. 한국의 대표 아이콘, 국가브랜드 이미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융합학문의 학제적 연구 없이는 안 된다. 국가의 관심도 부족하고 관련 지방정부의 의지도 약하다. 연구자들 역시 결집력이 약하다. 동네북처럼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인양 취급되었다. 학문적 정립의 노력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분야도 심화시키는 아리랑 10만개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아리랑의 문화콘텐츠 창조산업을 온전히 하려면 아리랑 관련된 한국인의 심층저변을 깊이 통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필자는 획기적인 아리랑 문화창조산업 개발을 촉구한다. 아리랑의 문화콘텐츠화의 당위성과 필요성, 미래성 등을 제기하였다. 아리랑 관련 이벤트, 팩션, 이미지를 통한 스토리텔링 실제 작품 창작 과정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아리랑은 시, 소설, 희곡,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 여러 장르의 원천 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항목별 창출은 아리랑 원형을 통한 문화상품의 스토리텔링화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의 변종 장르로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산은 전통문화 정체성의 활력뿐 아니라 한류의 경제력과 상상력이 되고 있다. 아리랑 스토리원형은 문화콘텐츠의 원형자원으로 영상문화상품 창작에 또 다른 변신을 보여줄 것이다. 가장 아리랑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러한 아리랑작품의 성공 여부는 디지털 기술에 기대어 아날로그적 예술형상화 수준과 수요자의 동시대적 반응에 달려 있을 것이다. 아리랑의 발생과 원리를 충실히 가치창조 할 때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인류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리라는 점이다.

아리랑의 자원화는 아리랑 연구사를 훑어보아도 그렇고 민요사의 통시적 고찰로 보아도 그렇듯이 지속적으로 재활용되었다. 여러 분야에 관심 또한 그렇다. 아리랑의 다양한 수용 현상에 비해 창조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리랑의 융합학문적 연구와 어울려 지식창조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부가 가치 찾기의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한 찾기를 해 본 셈이다. 아리랑의 시대적 대세는 당대마다 호응하는 향유층을 겨냥하여 끊임없는 표출이 이루어졌다고 점에서 이해된다. 아리랑의 한민족문화로서 존재감을 넘어 등재에 부응하는 세계문화유산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등재 이후 아리랑 유산의 가치창조에 대한 대책사업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수준의 통섭적 안목으로 아리랑 콘텐츠산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아리랑의 전승문법, 창조원리, 다성적 소통 등으로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21세기 지구촌 트렌드에 너무 잘 맞는다. 이 방면의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화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치유적 문화공유인자가 아리랑에 있음을 거듭 촉구하고 종족과 이념을 넘어서서 함께 실천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아리랑자원에 대한 생태적 전략과 상품화 방안은 한류의 선도성과 더불어 아리랑의 다양한 국면의 활성화로 강구되어야 한다. 한류형 아리랑문화산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결국 아리랑의 본질성에 충실하되,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아리랑의 학술적 집적이 지속화되지 못했다. 필자도 이 점 반성하면서 학제 간의 융합학문을 살리는 모델에 대해 다른 글에서 제기한 바 있다.⁵⁷⁾ 융합학문으로 아리랑의 문화콘텐츠산업의 학문적 기반을 강조하였듯이 기존 성과를 비판하고 아리랑의 세계화를 되짚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나 관련 지자체, 관련 단체, 연구 인력집단 등 다양한 관심이

57) 이창식, 「설문대할망 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11, 17-22쪽

표명되고 있다. 독도영유권이나 고구려 공정처럼 한때 이슈로 남을까 두렵다. 아리랑학술축제와 같은 논쟁의 번잡한 따로 놀기에서 벗어나 학문적 축적과 문화상품의 창조적 기대가 동시에 수용되어 전략화 수행이 절실하다. 아리랑 유산의 성격상 범세계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보편적 공유의 스토리텔링은 아리랑 오르기쯤 감성소를 기반으로 한국 특유의 아리랑 유전자를 세련되게 담아내야 한다.

통섭지향 스토리텔링 : 컨버전스(convergence) 형태 부합

■ 키워드: 대동-대동성

■ 기본 아이디어 : 현재 아리랑의 활용가능성을 볼 때 남과 북의 공통 음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통일아리랑 콘텐츠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아리랑과 현대문학, 현대음악, 현대극 등으로 확장시키려고 할 때, 민중적 참여와 관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기존의 아리랑을 현대적 기법으로 확장시킨 사례들을 함께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활용 항목 사례의 제시

- 금강산 아리랑 오페라: 북한 모란봉극예단과 ‘나무꾼과 선녀’이야기 극화 결합
 - 곡예기능에 대가 ‘나무꾼과 선녀’ 서사 그리고 아리랑 접목
- 북한 예술공연 축제 ‘아리랑’의 비판적 수용⁵⁸⁾과 통일아리랑 콘텐츠: 화합민족축제의 공연화
- 독립영화 ‘위낭소리’과 아리랑 소리꾼 삶의 문학콘텐츠: 서정적 아리랑 영상 재현과 소리꾼 일대기 스토리
- 김정 ‘아리랑 그림’과 아리랑 영상민속지: 그림으로 아리랑 애니메이션 제작과 아리랑 영상관

58)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 395-406쪽.

- 연극 ‘아리랑고개’와 시극 창작: 역사적 풍자의 민요시극화 운동
 - * 소리극 황진이(국립국악원) 참고.
- 윤도현 ‘월드컵아리랑’ 한계와 신명 올리기: 소리 이미지의 스토리텔링 접목 문제
- 현대시 ‘~아리랑’의 시극화 콘텐츠 창작: 신경림, 고은, 강은교, 박세현 등
- 아리랑 단동치기와 활인심방: 노래교육문화콘텐츠와 아리랑 기수련 프로그램
- 사냥놀이 사냥아리랑⁵⁹⁾: 강원도 등지의 수렵문화와 백두대간 극기 프로그램

■ 실제 스토리텔링 사례의 제시

- 명칭 : 치유아리랑 프로그램
- 내용 특징
 - 백두대간 활인산수(活人山水) 이미지 접목
 - 음악치료의 생태적 이미지 활용
 - 풀이의 아리랑 부르기
- 출전과 근거 : 『정감록』, 『활인심방』, 『정선아리랑교육교재』 등
- 이미지 연구
 - 기 수련, 음악명상 기획
 - 아리랑 백두대간 정맥 문화권의 이미지 살리기
- 활용가능 분야 : 아리랑 옛길 걷기
- 연계 활용 확대 : 21세기형 아리랑 이미지 영화 제작 등

■ 스토리텔링 마케팅: 경계 허물기 스토리텔러 위주의 아리랑 통섭형 아리랑학당 조성

59) 류연산, 『만주아리랑』, 돌베개, 2003, 141쪽.

4. 맺음말

2장에서 아리랑 원형에 대해 정신소(精神素)를 고려하여⁶⁰⁾, 저항-상생-대동의 삼재론을 내세웠다. 저항성은 한민족의 천명적 신화론-天-과 관련이 있다. 상생성은 한민족의 숙명적 지역론-地-과 관련이 있다. 대동성은 한민족의 인본론-人-인데, 세계적 열린 마인드다. 이 셋의 국면은 아리랑 유산의 잠재가치로 문화콘텐츠의 소스로 값지다고 보았다. 한류의 저항적 상상력, 지역기반 감성의 진행형, 치유의 융합원리는 아리랑 유산의 창조적 유전인자라고 정리해 보았다. 이는 필자의 현장경험론과 앞선 아리랑인문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스토리텔링의 사례와 창작 방향은 기존 글을 일부 수정하여 아리랑 초장르론을 제기해 보았다. 팩션지향 상상력 스토리텔링, 놀이지향 재미 스토리텔링, 컨버전스지향 치유 스토리텔링이 그것이다. 세부 창작 사례는 아리랑 피칭워크샵-생산, 유통, 소비 동시다발의 아리랑 포럼-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리랑 화두는 문화전쟁의 중심에 있는 듯하다.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국책급 아리랑 문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아리랑 유산의 창조성 연구는 아리랑의 융합학문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리랑 유산에 대한 인문융합의 학제적 연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아리랑 유산의 세계화 기반의 보편적 가치를 심화시켜 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후속 인재로서 이 방면 전문가-아리랑 학당의 아리랑 스토리텔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아리랑의 활성화를 지속시켜 가야 한다. 아리랑 유산의 원형성을 짚으면서 세계화의 당위성과 현재성, 소통성 등을 강조하였다. 항목별 연구는 아리랑 원형과 아리랑 콘텐츠의 가치창조를 통한 인류문화의 걸작으로 학제간의 융합프로젝트가 시도되어야 한다. 아리랑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산은 K-팝과 같은 한류의 K-아리랑의 경제적 효율성과 감성공유의 코드에 맞춰야 한다. 아리랑 원형은

60) 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어문논총』 5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49-53쪽.

한류 킬리콘텐츠의 문화상품으로 드러날 것이다.

아리랑 유산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 동시다발의 스토리텔링-스토리텔링마케팅을 구축해야 한다. 본래 취지는 다르지만 북한의 집체아리랑 공연 기획과 연출을 참고하되, K-아리랑과 아리랑굿 한류의 감성 스토리텔링 접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생적인 향토소스(지역의 아리랑자원 활용)와 디아스포라의 한인 향수소스(역사적 아리랑자원 활용)를 통해 이야기 가공과 세계인의 감성 자극 문제를 지속적으로 진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아리랑의 세계화 센터 설립-공자학당, 세종학당에 대비되는 아리랑학당-을 거듭 제안한다. 한류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문적으로 한류의 성과를 비판하고 아리랑의 감성적 확산을 정립하면서 통섭의 세계화를 되짚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아리랑 유산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고 해서 반대 급부로 감정적 대응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오히려 아리랑 매력에 적절한 이야기의 감성DNA 찾기가 시의적절한 대응책이다.

아리랑 유산의 진정성은 OSMU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김구의 민족적 문화주의 실현론이 가능하다. 아리랑의 창조적 진행형은 한류의 또다른 국면이다. 한류 K-아리랑의 가치창조론은 21세기 대세다. 다만 보편적 가치 소통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인데 정책 판단과 관련 연구자의 혁신 인식도 중요하다. 또 역기능의 우려에 대한 반론도 기대된다. 이 글을 통해 향후 아리랑의 문화적 다양한 국면을 쟁점화하여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의 진입을 기대한다. 필자의 관심은 과거의 아리랑 예찬에 있지 않고 오래된 미래 아리랑 활용에 있다. 앞서 제시한 스토리텔링 사례는 인문학자로서 창조 스토리텔러로서 제안에 머물러 있어 분명 한계가 있다. 미래 아리랑 크루즈-아리랑킬리콘텐츠 결정판-에서 지구촌 여러 모순의 경계를 넘어 아리랑 오르가즘 프로그램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이번 논의가 아리랑 연구와 활용, 양쪽 영역에 새로운 시각으로 쟁점화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강등학, 「아리랑의 형질전승과 문화적 실천의 문제」, 『한국민요학』 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 강원도, 『강원의 민요』 I · II, 2001-2003.
- 강은혜, 「한국 난타 문화의 원형」, 『한류와 한사상』, 모시는사람들, 2009.
- 권오성, 「아리랑의 상징성과 세계성」, 『아리랑의 세계화와 영남아리랑의 재발견』,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 2009.
- 김기현, 「밀양아리랑의 형성과정과 구조」, 『민요론집』 4호, 민요학회, 1995.
- _____, 「아리랑 노래의 형성과 전개」, 『퇴계학과 한국문화』 35-1, 퇴계연구소, 2004.
- 김시업, 『정선의 아라리』, 성균관대출판부, 2003.
-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
-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 김영기, 「정선낙향아라리」, 『백두대간 민속기행』, 강원일보사, 1999.
- 김영희, 「밀양아리랑제 전승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2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 김재홍, 「민족의 노래 아리랑정책제안」, 『아리랑의 이해와 계승에 관한 정책보고서』, 2004.
- 김홍련,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아리랑의 확산과 의미변천」, 『음악과 민족』 31집, 민족음악학회, 2006.
- 문화재청, 『지역별 아리랑 전승실태 조사보고서』 2004, 2006.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아리랑 현황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8.
- 박관수, 『어러리의 이해』, 민속원, 2004.
- 박민일, 『아리랑 자료집』 I · II, 강원대출판부, 1991, 1993.
- 배경숙, 「이재욱의 영남 전래민요집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안상경, 「청주아리랑의 전승과 스토리텔링 가능성」, 『어문연구』 51집, 어문연구학회, 2006.

- 안상경,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9.
- 이보형, 「아리랑 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5집, 한국민요학회, 1997.
- 이인화 외,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6.
- 이정면,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기행』, 이지출판, 2007.
- 이창식, 「뗏목 관련 민요의 실상과 활성화 방안」, 『한국민요학』 8집, 한국민요학회, 2000.
- _____, 「아리랑의 정체성과 현장성」, 『민요론집』 6집, 민요학회, 2001.
- _____,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2002.
- _____, 「스토리텔링의 이해」,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 _____, 「전통민요의 자료활용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학콘텐츠』, 청동거울, 2005.
- _____, 「인제지역 뗏목민요의 원형과 활용」, 『한국민요학』 17집, 한국민요학회, 2005.
- _____, 「아리랑, 아리랑 콘텐츠, 아리랑학」, 『한국민요학』 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 _____,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 _____, 「민요 가창자의 전승과 소통」, 『한국민요학』 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 이창식 외,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2004.
-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 장정룡·이한길, 『인제뗏목과 뗏꾼들』, 인제군, 2005.
- 최승순 외, 『인제 뗏목』, 인제문화원, 1985.
- 최상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 돌베개, 2007.
-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 2011.
- 편해문, 「문경새재아리랑의 뿌리를 찾아서」, 『문경의 어른과 아이들 노래를 찾아서』, 민속원, 2008.

「ABSTRACT」

A Study on Arirang's Heritage of Globalization and Storytelling

Chang-sik Lee
(Semyung University)

The cultural content of Arirang has been accumulated for many years which provides the base for creating Arirang values in the 21st century. Transformation of Arirang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ies is unlimited. The area of Arirang as cultural products has infinite potentials. This study explores the identity and creativity of Arirang using the cluster-method as well as Arirang's symbolic image and its perspective as fusion-learning. Attempts to create storytelling of Arirang will continue. This requires innovative ideas a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s necessary.

In this study, the justifiability, the necessity and the futurity of Arirang's cultural content were examined. Many cases about the actual procedure of creating stor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Arirang's images, events and factions are presented in depth. Arirang is a fountainhead for various genres such as poetry, fiction, drama, movies, music, dance and art. If this change can be viewed as creation of new genre, this can constitute not only an economic power but also symbolic power of the Korean Wave stemming from the energy of traditional culture. Arirang's original story as a storytelling source may attract new changes.

Arirang's history has been studied and investigated carefully and the resource has been recycled continuously. However, in spite of Arirang's wide acceptance,

the value of Arirang as a creative genetic resource has not been examined seriously. A blended intellectual research for Arirang and developing new domain of intellectual creation should be accomplished to create values. It is more than finding and understanding the identity of traditional culture. It is actually finding an alternative that suits a trend in this era, where higher value-added business is so much important. The power of Arirang is that, Arirang has targeted responding demanders, and expressions and responses for it has continuously accomplished in every era. Arirang is more than a symbol of Korean culture. It should secure a prestige as a universal cultural heritage. The hunger for creating knowledges of Arirang is sincerely required.

Arirang's values such as multi-communications, principles of creation and laws of transmissions, both originality and universality of Korean culture will be shown in the world. Arirang harmonizes well with 21st century global trend. To raise experts in this area, a well-organized system and supports are required. This includes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which cover universality. To Arirang there is heal cultural heritage. The mode of life strategy and commercialization plan with leadership from the Korean wave create harmonizing Arirang heritage. he Arirang research is necessary to achieve all of these potentials.

Key words : Arirang, culture contents, storytelling, Arirang heritage, Korea wave(韓流)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8.5. / 게재확정일 : 8.15.

